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혁명사상

으로 철저히 무장하자!

로동신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관지

제309호 [루게 제24722호] 주제103(2014)년 11월 5일 (수요일)

위대한 김정은동지

따라 최후의 승리를

향하여 앞으로!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동지의 지도밑에 조선인민군 제3차 대대장, 대대정치지도원대회 성대히 진행

위대한 당의 평도 따라 군력강화와 강성국가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대혁신, 대비약이 끊임없이 창조되고 있는 격동적인 시기에 조선인민군 제3차 대대장, 대대정치지도원 대회가 11월 3일과 4일 혁명의 수도 평양에서 성대히 진행되었다.

주체의 건군사에서 세번째로 열린 이번 대회는 백두산절세위인들의 대대증시사상과 불멸의 건군업적을 견결히 옹호고수하고 끝없이 빛내이며 전군 김일성-김정일주의화의 요구에 맞게 대대강화의 새로운 리정표를 마련하는 역사적인 대회로, 인민군대의 대대들을 수령결사옹위의 최정예근위대로 만들기 위한 투쟁으로 전군을 총결기시켜 군력강화의 최전성기를 열어나가는 데서 중대한 의의를 가진다.

대회에는 조국의 하늘과 땅, 바다를 철벽으로 지키고 강성국가건설의 주요전구마다에서 기적과 위훈을 떨치고 있으며 사회주의조국의 안전과 인민의 행복을 믿음직하게 수호해나가고 있는 부대들의 대대장, 대대정치지도원들과 지난 기간 대대강화를 위한 사업에 적극 이바지한 지휘성원들이 참가하였다.

대회장정면에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태양상과 위대한 평도자 김정일동지의 태양상이 조선로동당기와 최고사령관기, 공화국기들을 배경으로 정중히 모셔져 있었다.

주석단배경에는 우리 당의 영광스러운 혁명전통을 상징하는 백두산모형과



지휘성원들과 모범적인 대대장, 대대정치지도원들이 주석단에 자리잡았다.

《김일성장군의 노래》와 《김정일장군의 노래》주악으로 대회는 시작되었다.

대회보고를 조선인민군 총정치국장인 조선인민군 차수 황병서동지가 하였다.

보고자는 천만국민이 위대한 당의 평도 따라 이 땅위에 천하제일강국을 일떠세우기 위한 드세찬 공격전을 벌리고있는 전투적 환경속에서 몸결에도 땀고싶던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를 모시고 조선인민군 제3차 대대장, 대대정치지도원대회를 진행하는 끝없는 영광과 행복을 지닌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주체사상의 기치밑에 총대로 개척되고 승리하여온 선군혁명의 갈피마다에는 인민군대의 대대강화를 위하여 바쳐오신 백두산절세위인들의 불면불휴의 로고와 은정깊은 사랑이 뜨겁게 어려있다고 하면서 그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피어린 항일전전의 불길속에서 대대강화의 고귀한 전통을 마련하신 위대한 김일성대원수님께서서는 정규적혁명무력건설의 첫 시기부터 대대를 정치군사적으로 강화하는데 선차적관심을 돌리시였으며 지난 조국해방전쟁시기에는 수많은 항일혁명투사들을 대대지휘성원으로 파견하시고 전쟁승리를 이룩하는데서 대대가 자기 역할을 다하도록 현명하게 이끄시였다.

《조선인민군 제3차 대대장, 대대정치지도원대회》라는 글발이 걸려있었다.

주석단에는 조선인민군 육군, 해군, 항공 및 반항공군 군기들이 세워져 있었다.

대회장에는 《조선인민의 모든 승리의 조직자이며 향도자인 조선로동당 만세!》, 《영광스러운 우리 조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만세!》라는 구호들이 나붙어있었다.

또한 《전군을 김일성-김정일주의화하자!》, 《위대한 김정은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당중앙위원회를 목숨으로 사수하자!》, 《김정일에국주의교양, 신념교양, 계급교양, 도덕교양을 더욱 강화하자!》,

《모든 대대를 당중앙위원회의 프락과 잇닿아있는 정든 고향마을로 만들자!》 등의 구호들이 대회장에 나붙어있었다.

환영곡이 울리는 가운데 조선로동당 제1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인 김정은동지께서 대회장에 나오시였다.

순간 전체 참가자들은 당과 국가의 모든 중하를 한몸에 지니시고 불철주야의 강행군길을 이어가시는 것처럼 바쁘신 속에서도 인민군대의 대대강화를 위해 기록한 자욱을 새기시는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를 크나큰 격정속에서

우러르며 폭풍같은 《만세!》의 환호를 터쳐올리었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동지께서는 전체 대회참가자들에게 따뜻이 답례하시며 조국보위와 강성국가건설에서 백두산혁명강군의 위용을 펼쳐가고있는 그들에게 뜨거운 인사를 보내시였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를 모시고 주체의 건군사에 길이 빛날 대회합을 가지게 된 참가자들의 가슴마다에는 당의 선군혁명평도를 백두산총대로 끝까지 받들어나갈 철석의 신념과 의지가 세차게 끓어번지였다.

황병서동지, 현영철동지, 리영길동지, 김원홍동지를 비롯한 조선인민군

군대의 대대강화를 위하여 바쳐오신 백두산절세위인들의 불면불휴의 로고와 은정깊은 사랑이 뜨겁게 어려있다고 하면서 그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2 면 으 로 계 속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동지의 지도밑에 조선인민군 제3차 대대장, 대대정치지도원대회 성대히 진행



1 면 에서 계속

주제 42(1953)년 10월 몸소 조선인민군 대대장, 정치부대대장회의를 소집하신 위대한 대원수님께서는 조국해방전쟁에서 영웅하게 싸운 대대장, 정치부대대장들을 축하해주시면서 대대를 강화하기 위한 과업과 방도들을 밝혀주시고 인민군부대들과 구분대들을 끊임없이 찾으시며 혁명무력건설사에 거대한 업적을 쌓아올리시었다.

위대한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대대는 인민군대의 말단지휘단위이고 기본전투단위이며 독립적인 생활단위라는 독창적인 해명을 주시고 대대를 강화하여야 인민군대의 전반적전투력이 백방으로 다져진다는 대대중시사상을 제시하시었다.

조선인민군 제2차 대대장, 대대정치지도원대회에서 대대를 정예화된 불패의 전투대로 만드는것을 대대장, 대대정치지도원들의 기본임무로 밝혀주시고 그들이 대대강화의 중심인물, 대대를 떠받드는 쌍기둥이 되어 모든 대대를 일당백의 전투

대로 만들도록 걸음걸음 손잡아 이끌어 주시었다.

보고자는 선군혁명의 험난한 초행길을 헤치시며 인민군대의 대대들을 정치군사적으로 강화하여 백두산혁명강군의 위력을 백방으로 떨치게 하여주시신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성스러운 혁명실력과 불멸의 업적은 주체의 건군사와 더불어 길이 빛날것이라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계속 하였다.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대대중시사상과 건군위업은 오늘 불세출의 선군령장이신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동지의 현명한 명도에 의하여 새로운 높은 단계에서 빛나게 계승발전되고있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는 중대와 대대를 거점으로 하여 진군김일성-김정일주의화를 전면적으로 실현하도록 명도하시어 혁명무력강화의 일대 전성기를 펼쳐놓으시었다.

수령영생위업의 새로운 장을 펼치신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는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태양의 모습을 백두산대국의 영상으로 천만년 길이

빛내이기 위한 성스러운 위업수행의 앞장에 인민군대의 대대들을 세워주시었다.

이 날에 대대장, 대대정치지도원들이 발휘한 순결한 사상정신적품모는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혁명생애와 불멸의 업적을 천추만대에 빛내이시려는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의 고결한 총정과 숭고한 도덕의리심이 안아온 빛나는 결실이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는 인민군대의 강군화를 군건설의 전략적선으로 제시하시고 김정일에국주의교양, 신념교양, 계급교양, 도덕교양을 강화하며 대대안에 당의 유일적령군체제와 혁명적군풍을 튼튼히 세우도록 정력적으로 이끌어주시었다.

인민군대안의 대대들을 영광의 날에나 시련의 날에나 추호의 변심과 흔들림도 없이 당과 수령을 맨 앞장에서 결사옹위하는 사상과 신념의 결정체로 튼튼히 다져놓으신것은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 군건설위업에 쌓아올리신 특출한 업적으로 된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는 현대전의 요구에 맞게 대대의 싸움준비를 백방으로 강화하는데 총력을 집중하도록 하시었다.

전군에 백두산훈련열풍과 명사수, 명포수운동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주시고 인민군부대들을 현지지도하시면서 모든 군인들을 그 어떤 전투임무도 훌륭히 수행할수 있는 진짜배기싸움군, 백두산호랑이로 키워주시었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는 대대안의 모든 중대들을 군인들의 정든 고향집으로 만들며 대대를 당중앙위원회의 프락과 잇닿아있는 정든 고향마을로 전변시키도록 뜨거운 사랑과 은정을 베풀어주시었다.

대대장, 대대정치지도원들이 김정일애국주의로 심장을 불태우며 강성국가건설의 주요전구마다에서 돌파구를 열어나가고도록 현명하게 이끌어주시었다.

보고자는 전체 대회참가자들과 인민군장병들의 다함없는 흠모와 한결같은 총정의 마음을 담아 위대한 김일성대원수님과 김정일대원수님께 가장 숭고한 경의를

드리었으며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동지께 삼가 최대의 영예와 가장 뜨거운 감사를 드리었다.

그는 모든 대대장, 대대정치지도원들이 대대를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와 금수산태양궁전을 결사옹위하는 총록탄대로 만들며 존엄한 정세의 요구에 맞게 만단의 싸움준비를 갖추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보고자는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를 선군혁명의 진두에 높이 모시여 우리의 앞길은 끝없이 밝고 창창하며 최후의 승리는 확정적이라고 하면서 모두다 이 땅우에 김정은백두산대국을 하루빨리 일떠세우기 위하여 힘차게 싸워나갈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이어 조선인민군 장령 리성국, 군관들이 한철호, 방경철, 손운선, 김진철, 류정혁, 최동운, 김철호, 김경일, 김봉철, 김영철, 유경선, 강철호, 김성진, 조성진, 김은철, 리성철, 김광혁, 리은주, 김두운, 한수만, 리동일, 오영남, 리철남, 황성길, 박현국이 토론하였다.

3 면 으 로 계속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동지의 지도밑에 조선인민군 제3차 대대장, 대대정치지도원대회 성대히 진행



2 면 에 서 계 속

토론자들은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군 건설업적을 빛내이시며 탁월한 사상과 영도로 인민군대의 대대들을 충정과 위훈의 한길로 이끌어주시는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동지에 대한 다함없는 감사와 흠모의 정을 격조높이 토로하였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 조국결사수호의 비상한 각오를 안고 어려운 비행 전투임무를 훌륭히 수행한 14명 육탄용사들의 위훈을 값높이 내세워주시고 최전연초소들과 최대열전지역의 섬방어대들을 비롯한 인민군부대들을 찾고 찾으시며 크나큰 사랑과 믿음을 안겨주시는데 대하여 격정에 넘쳐 말하였다.

그들은 지난 기간 대대안의 모든 군인들을 수령결사옹위의 전투위사로 철저히 준비시키며 결사관철의 정신,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으로 부대지휘관리와 싸움준비, 군인생활개선에서 이룩된 성과와 경험, 교훈들에 대하여 언급하였다.

토론자들은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의 높으신 뜻을 받들어 대대강화에서 새로운 전환을 일으켜 위대한 김정은혁명강군의 정치군사적위력을 백방으로 다져나갈 결의들을 피력하였다.

그들은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의 유일적령군체계를 더욱 철저히 세우며 명사수, 명포수운동의 불길을 세차게 일으켜 모든 대대들을 수령결사옹위의 성세, 불침

의 전합, 하늘의 제일결사대로 튼튼히 준비해나갈것이라고 말하였다.

김정일애국주의로 심장의 피를 끓이며 강성국가건설에서 조선속도창조의 불길드높이 애국의 피와 땀을 아낌없이 바쳐나가는 참다운 인민의 군대로서의 영예를 빛내어나갈데 대하여 그들은 언급하였다.

토론자들은 병사들의 만형, 만누이가 되며 대대를 생사운명을 함께 하는 혁명동지, 혁명전우들의 집단, 당중앙위원회의 트랙과 잇달아있는 정은 고향마을로 꾸러 나갈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조선로동당 제1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대회에서 력사적인 연설을 하시었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는 온 나라가 당의 전투적호소를 높이 받들고 노도와 같이 일떠서 사회주의강대국건설을 위한 모든 친구들마다에서 권전패승을 거두며 투쟁의 노래, 승리의 노래소리를 그 어느때보다도 더 높이 울리면서 새로운 투쟁의 목표를 점령하기 위한 거족적인 진군을 다그치고있는 거창한 시기에 조선인민군 제3차 대대장, 대대정치지도원 대회를 진행하였다고 하시었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는 대회 참가자들과 우리 국가의 령도, 령해, 령공을 적들의 침략으로부터 굳건히

사수하고있는 전체 인민군장병들에게 당중앙과 공화국정부, 온 나라 전체 인민의 따뜻한 마음으로 열렬한 축하와 전투적인사를 보내시었다.

조선인민군 제3차 대대장, 대대정치지도원대회는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은동지의 대대중시, 대대강화사상을 군건설과 군사활동에 철저히 구현하며 군력강화의 최전성기를 열어나가는데서 중요한 리정표를 마련한 획기적인 계기로 된다고 말씀하시었다.

혁명의 더 큰 승리, 더 큰 전진을 이룩하기 위한 우리의 투쟁이 과감히 벌어지고 적들과의 대결전을 앞둔 오늘의 정세는 우리가 선군의 기치를 변함없이 들고나가며 군력을 더욱 강화할것을 절실히 요구하고 있다고 하시었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는 군력을 강화하는데서 대대의 위치와 임무의 중요성에 대하여 말씀하시었다.

대대는 인민군대의 말단지휘단위이며 주요전투단위이라고 하시면서 대대가 계구실을 바로 하지 못하면 중대를 강화할수 없는것은 물론 연대와 사단, 군단도 강화할수 없으며 나아가서 인민군대를 강화하는데 커다란 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하시었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는 모든 대대들을 그 어떤 강적도 단매에 때려부실수 있는 무적필승의 최정예전투대대로, 당중앙위원회의 트랙과 잇달아있는

병사들의 정은 고향마을로 만드는데서 나서는 강령적과업들을 제시하시었다.

무엇보다 중요한것은 혁명적인 사상공세를 드세게 틀어대어 대대안의 모든 군관, 군인들을 사상의 강자, 도덕의 강자로 튼튼히 준비시키는것이라고 하시었다.

혁명군대의 위력은 사상과 도덕의 위력이며 사상과 도덕이 만장약된 총대는 언제나 백전백승하는 법이며 이것은 두차례의 혁명전쟁과 사회주의수호전에서 확증된 철의 진리이라고 강조하시었다.

모든 군인들을 사상의 강자, 도덕의 강자로 준비시키는것을 기본과업으로 내세우고 당정치사업을 끊임없이 심화시켜 나갈데 대하여 언급하시었다.

군인들속에서 김정일애국주의교양, 신념교양, 계급교양, 도덕교양을 강화하여야 한다고 하시면서 4대교양을 옳은 방법론을 가지고 실속있게 벌이면 전군을 정치사상강군화, 도덕강군화하고 싸움준비를 완성하는데서 근본적인 전환을 가져올수 있다고 하시었다.

사람과의 사업을 철저히 마음과의 사업, 감정정서와의 사업으로 전환시키며 하나가 열, 열이 백, 백이 천을 움직이는 방법으로 대대안의 모든 군관들과 군인들을 당의 두리에 굳게 묶어세워야 한다고 강조하시었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는 인민군대에 있어서 싸움준비, 훈련보다 더 중요하고 더 절박한 과업은 없다고 하시면서 싸움준비에서 레일이란 있을수 없다고 말씀하시었다.

유사시에 피를 물고 덤벼드는 적들에게 군인들이 훈련되지 않았으니 기다려달라고 할수 없다고, 이 세상에서 전쟁처럼 맹목하고 엄정한 판정관은 없다고 하시면서 전쟁은 훈련을 하지 못하였다고 사정을 봐주지 않으며 그가 누구이든 전투결과에 따라 승리자와 패배자로 명백히 갈라지게 된다고 하시었다.

인민군대가 훈련을 소홀히 하면 총대에 녹이 쏘고 조국과 인민의 운명이 철성판에 오르게 된다는 혁명의 철리를 정대로 조아박듯 뼈속깊이 새기고 언제 어디서나 훈련을 기본으로 틀어쥐고나갈데 대하여 강조하시었다.

인민군대는 훈련제일주의로 나가야 하며 전군이 백두산훈련열풍으로 용암처럼 부글부글 끓어번지게 하여야 한다고 하시면서 우선 대대장, 대대정치지도원들을 비롯한 군관들이 훈련에서 모범이 되어야 한다고 하시었다.

명장밑에 약졸이 없다고 군인들을 호랑이로 키우자면 지휘관들부터 머리가 번개

같이 들고 군사기술수준이 높으며 그 어떤 육체적부담도 능히 이겨낼수 있는 야전형의 지휘관, 현대전의 능수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시었다.

김일성-김정일군사전략전술사상과 주체전법, 부대, 구분대의 전투임무와 현대전의 요구에 맞게 훈련내용과 방식을 끊임없이 개선할데 대하여 언급하시었다.

명사수, 명포수운동의 불길을 더욱 세차게 지퍼올리는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하시면서 첫 명포수중대의 영예를 지닌 화도방어대 제5중대의 모범을 따라 모든 대대들이 명사수대대, 명포수대대가 되어야 할것이라고 하시었다.

훈련에서 형식주의, 고정격식화, 멍박기를 철저히 배격하고 현대전의 요구와 양상, 부대, 구분대의 전투임무특성에 맞게 훈련형식과 내용, 방법을 끊임없이 개선할데 대하여 언급하시었다.

모든 훈련을 형식과 틀에 매이지 말고 실천의 맛이 나게 조직진행하며 요구성을 최대로 높이고 훈련에 대한 총화와 평가사업도 잘할데 대하여 가르치시었다.

대대안에 강철같은 군기를 세우고 모든 사업과 생활을 군사규정과 교범의 요구대로 조직진행해나가며 지휘관들이 부대지휘관리를 개선강화할데 대하여 강조하시었다.

지휘관들이 장군님식병사관을 체질화하며 군인들을 친부모의 심정으로 따뜻이 보살펴주고 이끌어주어야 한다고 하시었다.

대대들에서는 부업을 강하게 내밀어 중대들을 다 부자중대로 만들고 군인들에게 언제나 푸짐한 식탁과 포근한 잠자리를 만들어주어야 한다고 가르치시었다.

려도방어대와 화도방어대의 모범을 따라배워 대대를 수련화, 원립화, 과수원화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일데 대하여 언급하시었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는 대대를 강화하기 위하여서는 대대장, 대대정치지도원들의 책임과 역할을 결정적으로 높여야 한다고 강조하시었다.

대대장, 대대정치지도원들은 자기 위치와 임무의 중요성을 깊이 자각하고 대대를 강화하기 위한 사업에 모든 정열과 지혜를 다 바쳐야 한다고 하시었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는 대대장, 대대정치지도원들이 철두철미 중대를 강화하는데 기초를 두고 사업하여야 한다고 하시면서 대대와 중대는 하나의 유기체와 같으며 중대강화이자 곧 대대강화이라고 말할수 있다고 하시었다.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김정은동지께서 조선인민군 제3차 대대장, 대대정치지도원대회 참가자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으시었다

조선로동당 제1비서 이시며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11월 4일 조선인민군 제3차 대대장, 대대정치지도원대회 참가자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으시었다.

황병서동지, 현영철동지, 리영길동지, 김원홍동지, 변인선동지, 서홍찬동지, 박영식동지, 럽철성동지, 조경철동지를 비롯한 조선인민군 지휘성원들과 군중, 군단급단위 지휘성원들이 참가하였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동지께서 마련해주신 영광의 대회에 참가한데 이어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를 모시고 뜻깊은 기념사진을 찍는 무한한 행복으로 하여 참가자들의 가슴은 세차게 설레고 있었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동지께서 촬영장에 나오시자 폭풍같은 《만세!》의 환호성이 터져올랐다.

전체 참가자들은 조선인민군 제3차 대대장, 대대정치지도원대회를 몸소 지도해주시고 대대지휘성원들이 항구적으로 틀어쥐고나가야 할 불멸의 대가를 밝혀



주시었으며 귀중한 혁명시간을 내시어 기념사진도 찍어주시는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에 대한 고마움에 걱정을 금치 못하면서 열광적으로 환영하였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동지께서는 영광의 환호에 답례하시며 대대강화의



속에 대회를 성과적으로 진행한 참가자들을 열렬히 축하하시었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동지께서는 대대장, 대대정치지도원들이 당의 의도에 맞게 대대를 최정예전투대로, 당중앙위원회의 뜨락과 잇닿아 있는 정든 고향마을로 전변시키기 위한 사업에서 자기들앞에 맡겨진 영예로운 사명과 본분을 다해가리라는 기대와 확신을 표명하시고 그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으시었다.

기념촬영이 끝나자 또 다시 《만세!》의 환호와 《김정은 결사옹위!》 구호의 함성이 터져올라 조국의 푸른 하늘가로 끝없이 메아리쳐갔다.

전체 참가자들은 대대장, 대대정치지도원들이 선군의 한길에서 값높은 삶을 빛내이도록 따스이 보살펴주시며 손잡아 이끌어주시는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동지의 크나큰 사랑과 믿음을 순간도 잊지 않고 대회를 쇄소리나는 일당백의 전투대로로 튼튼히 준비시킴으로써 위대한 김정은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당중앙위원회와 금수산태양궁전, 사회주의조국을 결사옹위해갈 불타는 맹세를 다지었다.

본사정치보도반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동지의 지도 밑에 조선인민군 제3차 대대장, 대대정치지도원대회 성대히 진행

3 면 에 서 계 속

대대를 병사들의 정든 고향마을로 만들기 위한 기본묘술은 중대들을 강화하는데 있다고 하시면서 대대장, 대대정치지도원들이 늘 중대군인들속에 깊이 들어가 생사고락을 같이하면서 그들을 친혈육의 정으로 따스이 보살펴주고 이끌어주어야 한다고 하시었다.

대대장, 대대정치지도원들은 중대들의 맨 마지막병사에 이르기까지 그들의 이름과 나이, 고향, 생각과 취미, 식성까지도 환히 꿰고있어야 하며 그들의 귀속감도 들어줄줄 알고 마음속상처도 따스이 풀어줄줄 알아야 한다고 가르치시었다.

늘 중대들을 대상하여 사업하면서 군인들의 생활을 보살펴주고 대대를 이끌어 나가야 하기때문에 누구보다 속도 많이 쉼이 없고 밤도 많이 흘리며 어느 하루 한시도 마음을 놓을수 없지만 그것을 삶의 보람으로, 행복으로 여겨야 한다고 하시었다.

당앞에 대대를 전적으로 책임겠다는 확고한 관점과 립장을 가지고 모든 사업을 설계하고 작전하여 무엇을 하나 해도 남보다 더 특색있게, 더 훌륭하게 할데 대하여 가르치시었다.

대대장, 대대정치지도원들은 언제나 당의 요구에 투쟁목표를 지향시키고 혁명열, 투쟁열로 심장을 불태워야 하며 대대

의 싸움준비를 완성하고 군인생활문제를 풀기 위해서라면 욕심이 지내 많다는 말을 들을 정도로 뛰고 또 뛰어야 한다고 하시었다.

군정배합, 3위1체를 원만히 실현하기 위하여 의식적으로 노력하고 혁명적동지애의 미풍을 높이 발양하며 사업과 생활에서 대중의 모범이 되고 무슨 일에서나 막히는것이 없는 팔방미인이 될데 대하여 언급하시었다.

싸움군이 되기 전에 도덕적으로 수양되고 순결한 량심과 의리를 지닌 참인간이 되어야 하며 언제나 솔직하고 고지식한 품성을 지녀야 한다고 하시었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는 대중운동과 경쟁바람을 세차게 일으키는것을 대대강화에서 새로운 전환을 일으키기 위한 중요한 방도로 내세우시었다.

대대에서는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을 비롯한 여러가지 대중운동을 힘있게 벌려 군사정치과업수행에서 집단적혁신의 불길이 세차게 타오르도록 하여야 한다고 하시었다.

최근에 당에서는 현실적요구로부터 인민군대에서 군위부대운동을 벌릴데 대한 중요한 방침을 제시하였다고 하시면서 오중홀7번대칭호쟁취운동을 군사정치사업의 총적과업으로 틀어쥐고나가며 그 체계안에서 군위부대운동을 활발히 벌릴데 대하여 언급하시었다.

당의 사상관철전, 당정책옹위전을 생명

으로 틀어쥐고 경쟁바람을 세차게 일으켜 강성국가건설의 주요전구마다에서 일당백의 용맹을 남김없이 펼쳐야 한다고 가르치시었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는 연설에서 전군이 대대를 중시하고 잘 도와줄데 대하여 강조하시면서 대대장, 대대정치지도원대회를 잘 꾸리고 그들을 내세워주며 대대사업에서 걸린 문제들을 책임적으로 풀어줄데 대하여 강조하시었다.

대대장, 대대정치지도원들에 대한 당의 믿음과 기대는 대단히 크다고 하시면서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는 모든 대대장, 대대정치지도원들이 대대를 무적필승의 최정예전투대로로 강화발전시키기 위한 사업에서 영예로운 사명과 임무를 다해가리라는 확신을 표명하시었다.

대대장, 대대정치지도원들이 자기 단위에 내려가면 중대장, 중대정치지도원들에게 꼭 자신의 인사를 전해줄것을 당부하시면서 그들이 당앞에 다진 맹세대로 중대를 호랑이중대, 부자중대로 강화해나가리라는 크나큰 믿음을 안겨주시었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는 《죽어도 혁명신념 버리지 말라》, 항일혁명선렬들이 피끓는 심장으로 력력이 아로새긴 글발, 오늘날도 우리 가슴에 그들의 맥동이 그대로 살아숨쉬는 이 신념의 구호를 심장마다에 쏘아박고 수령님과 장군님따라 이어온 우리 혁명이 빛나게 완수되는 그날을 하루라도

더 빨리 앞당겨주기 위하여 불굴의 신념으로 억세게 싸워나가자고 뜨겁게 호소하시었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 연설을 마치시자 백두의 선군령장을 우러러 리치는 참가자들의 《만세!》의 환호성이 대회장장을 진감하였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동지께서는 이어 이번 대회를 통하여 대대강화를 위해 자기의 모든것을 다 바쳐온 대대지휘성원들이아발로 애국자, 숨은 영웅이라고, 당중앙은 이런 동무들이 있는것을 가장 큰 자랑으로 생각한다고 하시면서 당중앙위원회는 이들을 높이 평가하기로 결정하였다고 뜨겁게 말씀하시었다.

이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을 조선인민군 총참모장 리영길동지가 낭독하였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동지께서는 당의 선군혁명령도를 높이 받들고 지난 10여년간 한 직무에서 사업하면서 대대를 수령결사옹위정신이 자넘치는 일당백의 전투대로로 강화하고 군인들의 정든 고향마을로 꾸리는데서 특출한 위훈을 세운 대대지휘성원들이 조선인민군 군관 방경철, 최동운, 한철수, 김철호, 신에근에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로력영웅칭호와 함께 금메달(마치와 낫) 및 국기훈장 제1급을 친히 수여하시었다.

대회에서는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동지께서 드리는 맹세문이 채택되었다.

본사정치보도반

혁명적인 사상공세로 조선속도창조의 불길을 더욱 세차게 지펴올리자

대보수를 앞당기게 한 집중포화의 위력

경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당에서 중시하는 대상들에 선전선동력량과 수단을 집중시켜 새로운 비약의 불꽃을 지펴올리자. 혁명적 불꽃을 세차게 올려야 합니다.》

당시상은 위력있는 오늘 당일군들은 정치사업을 인민

남흥청년화학연합기업소 당위원회 일군들의 사업에서

군대식으로 공격적으로 해야 한다. 사상의 포문을 열고 집중포화를 틀어놓고 비록 생산공정대 보수를 열흘이나 앞당기게 한 남흥청년화학연합기업소 당위원회 일군들의 사업이 이것을 보여주고있다.

먼저 불을 지피려 화하여 주고 일군들이 앞장에 서게 하였다. 이렇게 되니 작업반 들사이의 경쟁열의가 한층 높아졌다. 중요하게는 사상공세의 기동성과 집중성을 보장하고 혁명적 열의를 동원하여 사상사업에서 보다 큰 성과를 얻을 수 있었다.

사상사업의 과녁을 바로 정확히 대중의 정신력을 최대로 발동하기 위한 사업을 공세적으로 벌여나가기에 한것은 사상사업에서 집중포화의 위력이 최대로

일군들의 심장에

비록 생산공정대 보수과제가 제기되었을 때였다.

가업소당위원회는 우선 일군들과 초급일군들을 계발시키는 사업부터 앞세워나갔다. 작업반장, 당세포비서이상 일군들이 참가한 질평회와 확대회의를 소집하고 그들을 불러일으킨것이 그 실례이다. 당위원회 책임 비서 전정수동무는 우선 남흥의 비록 생산공정대 보수와 관련하여 주신 어머니수령님의 교시와 위대한 장군님의 말씀, 경애하는 원수님의 말씀을 일군들의 가슴마다에 깊이 새겨주었다. 그리고 기업소앞에 나선 비록 생산공정대 보수과제와 작업반, 매 사람이 해야 할 전투업무를 구체적으로 알려주어 모든 사람들이 뚜렷한 목표를 가지고 전투에 신심있게 들어가게 하였다.

지난 시기와는 달리 올해에는 전투과제를 작업반단위로 세분

선전선동력량과

사상의 포문을 열고 집중포화를 틀어대는데서 당위원회가 처음으로 힘을 넣은 문제는 비록 생산공정대 보수전투현장에서 선전선동력량과 수단을 총집중시켜 비약과 혁신의 불고기가 번져나갈 것이라는 방침을 세웠다. 당위원회는 전투장치의 분위기부터 고조시켜 기 위한 사업을 잘하였다.

수단을 총집중

대보수전투현장의 곳곳에 붉은기가 나뉘었다. 작업반사회의 증산경쟁도표와 이동신속도표를 전개하였다. 인민군대정치일군들처럼 대중과 심장을 맞대고 현장을 속도도 쓰면서 그들을 고무추동하였다. 생산진물체제와 기대 등 로동자들이 일하는 모든 곳에 하루에

창성식료공장 초급당위원회에서

시기가 위한 정치사업을 두세차례 벌일 결의를 그 가슴속에 새겨넣었다.

공장에 돌아온 초급당에서는 일군들을 당의 사상으로 더욱 튼튼히 무장시키기 위한 학습부림을 힘있게 내밀었다. 공장 이상 일군들과 작업반장, 근로 단체인 초급일군들속에 공장에 주신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유훈과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공장을 현저지도하시면서 주신 말씀, 당의 경쟁정책을 깊이 체득시키기 위한 학습의 원바람을 일으켰다.

초급당위원회는 공장에 갖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영도사적내용을 연철소개설에도 보충하는 사업과 회의실, 청년학교 등 교양 거점들을 잘 꾸리기 위한 사업을 벌여 사상교양사업을 실속있게 진행할 수 있는 토대를 더욱 튼튼히 갖추었다. 그러나 늘 대중속에서 정치사업을 활발히 벌여나가고도 일군들을 준비시키는 사업은 힘껏 전진시키지 않았다.

초급당위원회는 책임기사 김창남동무에게 일군들의 정치사업능력을 높여주기 위한 사업을 짜고들도록 분공을 주고 그 정책을 수시로 알아보면서 부족점도 제때에 바로잡아주었다.

한편 초급당위원회는 기초직 품작업반 반장 수령관동무가 정치사업을 능숙하게 하도록 이끌

모든 일군들이 정치사업의 기수로

우리 당의 불멸의 령도업적이 뜨겁게 아로 새겨져있는 3층3대혁명 불꽃이 창성식료공장의 종업원들이 높은 정신력을 발휘하며 식료품생산을 힘있게 다그쳐가고있다.

이 공장에서 생산정상화의 통풍이 그처럼 높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모든 일군들이 선전선, 선동열의를 종업원들의 정신력을 최대한 분출시키기 위한 정치사업을 확고히 앞세워나가고있는데 비결이 있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말씀에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전당이 선전선, 선동열이 되되 모든 일군들이 다 정치사업을 하여야 하겠습니다.》

조선로동당 제8차 사상일군대회에 참가하여 경애하는 원수님의 강령적언설을 받아들였을 때 공장초급당에서 여인남동무는 흥분과 격정을 누를 수 없었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숭고한 뜻대로 공장의 모든 일군들을 선전선, 선동열이 되게 준비시켜 대중의 정신력을 폭발

어주고 그의 모범을 따라

작업반들을 비롯한 모든 초급일군들이 정치사업실무력을 갖추어나가도록 하였다.

이렇게 사업을 짜고든 결과 공장의 모든 일군들이 종업원들의 정신력을 발동하기 위한 다양한 형식과 방법의 정치사업을 능숙하게 진행해나가게 되었다.

일군들모두가 선전선, 선동열이 되어 정치사업을 활발히 벌여나간 종업원들은 공장을 현저지도하시면서 주신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현저지도를 받으며 고 식료품생산에서 비약과 혁신을 일으켰다.

이들은 산파일공장에서 패권을 쥐고도 건설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과 경애하는 원수님의 현저지도를 심장으로 새기고 산파일공장에 달려 오고 나서, 산파일공장에서부터 대공주의의 새 물결에서 대진전을 이룩하였으며 다음해생산에 쓸 수백대의 산파일공장을 비롯하여 원로들도 충분히 마련해놓았다.

일군들모두가 선전선, 선동열이 되어 정치사업을 진행해나가는 나날에 이 공장종업원들은 사상의 감자, 신념의 강자로 더욱 역세게 자라나게 되었으며 식료품생산에서도 기적과 혁신을 끊임없이 창조하게 되었다.

본사기자 리종석

평균 70여명의 속보가 제시되었다.

속보의 제목도 사상이 뚜렷하고 호소성이 높게 달랐다.

실례로 《351고지서 15분만에 정령한 영유권사들의 그 넋을 이어》라는 고정체제에 이 동식속보만이나 날은 속보는 대중을 전화하는 용사들의 정신세계에 이끄러가는 말없는 정치사업이었다. 보수가운데만도 수천명의 혁신자들이 소개되었다. 경제선동의 다양한 형식과 방법을 적극 활용한것도 집중포화의 위력이 남김없이 파시되게 한 오인의 하나이라고 말할 수 있다.

실례로 발전로직장에서 10대의 발전제비모터라도체에 맞 부수작업과제가 제기되었을 때였다. 2보수직장과 원로직장을 비롯하여 10개 단위에서 200여명의 로동자들이 동원된 작업은 격렬한 발발에 하였다.

당위원회일군들은 방송선전차량 현장에 접근시키고 방송선동의 도수를 높여나갔다.

비서 최강식, 부부장 김영순 동무를 비롯한 당위원회 선전선동부 일군들이 방송기고도 쓰고 마이크를 직접 잡고 방송선동을 화신으로 발표하였다.

본사기자 손영희

창성식료공장 초급당위원회에서

시기가 위한 정치사업을 두세차례 벌일 결의를 그 가슴속에 새겨넣었다.

공장에 돌아온 초급당에서는 일군들을 당의 사상으로 더욱 튼튼히 무장시키기 위한 학습부림을 힘있게 내밀었다. 공장 이상 일군들과 작업반장, 근로 단체인 초급일군들속에 공장에 주신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유훈과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공장을 현저지도하시면서 주신 말씀, 당의 경쟁정책을 깊이 체득시키기 위한 학습의 원바람을 일으켰다.

초급당위원회는 공장에 갖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영도사적내용을 연철소개설에도 보충하는 사업과 회의실, 청년학교 등 교양 거점들을 잘 꾸리기 위한 사업을 벌여 사상교양사업을 실속있게 진행할 수 있는 토대를 더욱 튼튼히 갖추었다. 그러나 늘 대중속에서 정치사업을 활발히 벌여나가고도 일군들을 준비시키는 사업은 힘껏 전진시키지 않았다.

초급당위원회는 책임기사 김창남동무에게 일군들의 정치사업능력을 높여주기 위한 사업을 짜고들도록 분공을 주고 그 정책을 수시로 알아보면서 부족점도 제때에 바로잡아주었다.

한편 초급당위원회는 기초직 품작업반 반장 수령관동무가 정치사업을 능숙하게 하도록 이끌

어느 선동원을 먼저 내세웠는가

우시군 대령리당위원회 사업에서

부조원들을 이끌었다. 작업시간과 휴식시간에 선동원들이 노동자들과 불어넣어 주는 선동사업에 잘 참여하였다. 매일 자기 맡은 품배기계를 어김없이 넘겨주어 노동과 힘은 들였으나 힘이 불분하여 작업과제를 수행하지 못하는 동장원 그리고 뒤떨어진 동장원이 있을 때에는 그들을 도와주고 날이 어두워질 때까지 물을 배웠다. 온 부조원들이 피었다. 이렇게 되니 부조원들의 품배기계에 두드러진 공업기술이 차고넘치게 되었으며 결국 차고넘치게 되었으며 결

높은 문화수준은 일군들이 지녀야 할 중요한 자질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불후의 고전적로작 《일군들의 문화수준을 결정적으로 높일대 대하여》를 발표하신 때로부터 5돌이 되었습니다.

2013년(2009)년 11월 5일에 발표된 이 로작은 발전하는 시대적요구에 맞게 모든 일군들을 고상한 사상정신적 품성과 높은 자질을 갖춘 혁명의 지휘선원으로 준비시키는데서 중요한 의의를 지니고있는 귀중한 지침입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일군들의 문화수준을 결정적으로 높여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의 문화수준은 지식수준, 도덕수준, 정서수준에 관한 문제이다. 사람은 혁명적세계관이 확고하게 되고 문화수준이 높아지면 문화수준이 높고 자질도 높아진다. 문화수준이 높을수록 자기주장이 높고 자기주장이 높을수록 자질도 높아진다. 자질은 문화의 창조자, 향유자, 전수자이며 창조적 인격체로서 사생활적인 사업으로 된다.

당의 현명한 령도밑에 사회주의문명국 건설이 힘있게 추진되고있는 오늘날 일군들의 문화수준을 높이는것은 더욱 중요한 문제로 나서고있다. 일군들의 문화수준이 낮으면 오늘날의 격동적인 현실에 맞게 사업을 창조적으로, 혁신적으로 할수 없으며 대중과의 사업도 그들의 사상감정과 정서에 맞게 능란하게 해나갈수 없다. 온 사회에서 고상하고 건전한 우리 식의 생활문화, 생활기쁨을 확립하기 위한 근본비결도, 오늘날의 대조전에서 대중의 열정과 투지를 헌신적으로 분출시키기 위한 중요한 방편도 일군들의 문화수준을 높이는에 있다. 높은 문화수준은 혁명성과 함께 우리 시대 일군들이 지녀야 할 중요한 자질이다. 일군들이 높은 문화수준을 지니는것은 모든 사업을 당정책적으로 해나가기 위한 선결조건이다.

일군들의 지식수준이 실력이고 사업 실력이다. 지식은 인민과민을 위한 방법과 경험에 매달려가며 얻고 지키는 문제이며 당의 의도와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풀어나갈수 없으며 사업에서 뚜렷한 실적

혁명열, 투쟁열로 불리는 일군

◇ 우리 당일군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늘어나고있다.

신계군당 책임비서 김승일동무도 그런 일군들중의 한사람이다.

그는 늘 수하한 작업복을 입고 군중속에 들어가 자기를 비춰보며 살고있다. 주민들의 생활을 돌보느라 땀은 신발은 벗은 사이였다. 가정의 세부부부 군의 발전전망과 관련된 큰 문제에 이르기까지 모든것을 건어안고 당조직을 발동하며 밤이 깊도록 뛰고 또 뛰었다. 그런 고생을 따르며 여겼다. 이런 어머니당일군이 한 개인은 당사업을 책임지고있기에 군의 비약적 발전이 이뤄지고있는것이다.

신계군당 책임일군만이 아니라.

배배인 작업복에 항일유격대식배낭을 메고 하늘아래 첫 동네로 불리는 심심산골의 마지막 집까지 찾고왔으며 대중에게 당정책을 해설선전하고 그 관철에 불리이켰고있는 당일군들의 수를 늘이고 있다.

◇ 인간의 아름다움은 결모습에 있는것이 아니라 그의 사상정신적품모에 있다.

경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결모습은 소박하고 수수해도 심장의 고통은 언제나 당의 뜻으로 높이고 온몸이 혁명열, 투쟁열로 불리는 일군. 이것이 우리 당이 바라는 선전일군의 모습입니다.》

일군들의 아름다움은 결모습에 있는것이 아니라 그의 사상정신적품모에 있다.

경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결모습은 소박하고 수수해도 심장의 고통은 언제나 당의 뜻으로 높이고 온몸이 혁명열, 투쟁열로 불리는 당의 참된 전사, 인민의 충북이 되어야 한다.》

최후들격전으로 고무추동

청진시 송평구역 군동리당위원회에서는 올해농사를 승리적으로 결속하기 위한 최후들격전으로 당원들과 농장원들을 적극 고무추동하는 화신적정치사업을 잘해나가고있다.

리당위원회일군들은 판리위원회 일군들과 함께 작업반들을 이끌고 내려가 농장원들과 함께 일하면서 그들에게 올해농사의 마무리를 잘하라는 것이 가지는 중요성을 알려주면서 당면한 영농전투에 힘있게 불려일으키고 있다.

리당위원회에서는 영농전투장치의 분위기를 높이기 위한 사업

파 함께 당초급선전일군들을 발동하여 화신적선동을 활발히 벌리도록 하고있다.

한편 리당위원회일군은 당면한 영농전투의 강령을 널리 일반화하면서 모든 작업반들에서 사회주의경쟁풍을 세차게 일으키고나도록 하고있다.

최후들격전으로 부르는 화신적선동의 불바람속에 농장의 당원들과 농장원들은 매일 맡겨진 전투를 넘겨 수행하면서 당면한 영농전투를 힘있게 다그쳐나가고 있다.

로동신문원 원철남

높은 문화수준은 일군들이 지녀야 할 중요한 자질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불후의 고전적로작 《일군들의 문화수준을 결정적으로 높일대 대하여》를 발표하신 때로부터 5돌이 되었습니다.

2013년(2009)년 11월 5일에 발표된 이 로작은 발전하는 시대적요구에 맞게 모든 일군들을 고상한 사상정신적 품성과 높은 자질을 갖춘 혁명의 지휘선원으로 준비시키는데서 중요한 의의를 지니고있는 귀중한 지침입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일군들의 문화수준을 결정적으로 높여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의 문화수준은 지식수준, 도덕수준, 정서수준에 관한 문제이다. 사람은 혁명적세계관이 확고하게 되고 문화수준이 높아지면 문화수준이 높고 자질도 높아진다. 문화수준이 높을수록 자기주장이 높고 자기주장이 높을수록 자질도 높아진다. 자질은 문화의 창조자, 향유자, 전수자이며 창조적 인격체로서 사생활적인 사업으로 된다.

당의 현명한 령도밑에 사회주의문명국 건설이 힘있게 추진되고있는 오늘날 일군들의 문화수준을 높이는것은 더욱 중요한 문제로 나서고있다. 일군들의 문화수준이 낮으면 오늘날의 격동적인 현실에 맞게 사업을 창조적으로, 혁신적으로 할수 없으며 대중과의 사업도 그들의 사상감정과 정서에 맞게 능란하게 해나갈수 없다. 온 사회에서 고상하고 건전한 우리 식의 생활문화, 생활기쁨을 확립하기 위한 근본비결도, 오늘날의 대조전에서 대중의 열정과 투지를 헌신적으로 분출시키기 위한 중요한 방편도 일군들의 문화수준을 높이는에 있다. 높은 문화수준은 혁명성과 함께 우리 시대 일군들이 지녀야 할 중요한 자질이다. 일군들이 높은 문화수준을 지니는것은 모든 사업을 당정책적으로 해나가기 위한 선결조건이다.

일군들의 지식수준이 실력이고 사업 실력이다. 지식은 인민과민을 위한 방법과 경험에 매달려가며 얻고 지키는 문제이며 당의 의도와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풀어나갈수 없으며 사업에서 뚜렷한 실적

박봉주 총리

환경대학생소년궁전개건공사정형 현지료해

박봉주총리께서는 환경대학생소년궁전개건공사정형을 현지로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숭고한 후대사상, 미래사망에 떠날때 환경대학생소년궁전이 새 세기의 요구에 맞게 훌륭히 개건되고있다.

총리는 공사장의 여러곳을 돌아 보면서 경애하는 원수님의 뜻을 받들어 맹목적으로 건물을 짓지 말고



박봉주총리 중앙동물원개건정형 현지료해

그는 조선인민의 행복과 번영, 경제건설과 인민생활향상을 위한 투쟁에서 보다 큰 성과를 거둘 바란다고 말하였다. 두 나라의 지리적요소가 멀리 떨어져있지만 정적, 정열, 문화 동등이 있어야만 새우관계를 확대발전시킬수 있는 것은 틀림없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자신의 충심으로 되는 인사를 전하여드림 것을 대사로께 부탁하였다.

【조선중앙통신】

박봉주 총리

박봉주총리께서는 환경대학생소년궁전개건공사정형을 현지로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숭고한 후대사상, 미래사망에 떠날때 환경대학생소년궁전이 새 세기의 요구에 맞게 훌륭히 개건되고있다.

총리는 공사장의 여러곳을 돌아 보면서 경애하는 원수님의 뜻을 받들어 맹목적으로 건물을 짓지 말고

박봉주총리 중앙동물원개건정형 현지료해

그는 조선인민의 행복과 번영, 경제건설과 인민생활향상을 위한 투쟁에서 보다 큰 성과를 거둘 바란다고 말하였다. 두 나라의 지리적요소가 멀리 떨어져있지만 정적, 정열, 문화 동등이 있어야만 새우관계를 확대발전시킬수 있는 것은 틀림없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자신의 충심으로 되는 인사를 전하여드림 것을 대사로께 부탁하였다.

【조선중앙통신】

박봉주총리 중앙동물원개건정형 현지료해

그는 조선인민의 행복과 번영, 경제건설과 인민생활향상을 위한 투쟁에서 보다 큰 성과를 거둘 바란다고 말하였다. 두 나라의 지리적요소가 멀리 떨어져있지만 정적, 정열, 문화 동등이 있어야만 새우관계를 확대발전시킬수 있는 것은 틀림없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자신의 충심으로 되는 인사를 전하여드림 것을 대사로께 부탁하였다.

【조선중앙통신】

